

고려시대 수록재 연구

고상현(동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박사과정 수료)

〈차 례〉

- | | |
|-------------------|---------------|
| 1. 머리말 | 2) 수록재의 실행 목적 |
| 2. 수록재 의례집의 간행 | 4. 수록재 도량의 건립 |
| 3. 수록재의 실행 형태와 목적 | 5. 맺는 말 |
| 1) 수록재의 실행 형태 | |

국문요약

고려시대 수록재에 대한 연구는 사료의 부족으로 인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필자는 시론적인 성격으로 고려시대의 수록재에 대한 단편 기사를 통해 수록의례집의 간행과 유포, 수록재의 실행 형태와 목적, 수록재와 관련한 도량 건립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수록의례집의 간행과 관련한 직접적인 記事는 『고려사』 선종7년조에 최사겸이 송나라에서 구해 온 수록의문과 이제현이 쓴 혼구의 碑銘에 『신편수록의문』 2권을 스님이 편찬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조선시대에 간행되기는 하였으나 현존하는 수록의례집인 『천지명양수록재의찬요』, 『천지명양수록잡문』 등에 고려 죽암공이 편찬하거나 또는 고려시대에 쓰여진 발문이 전하는 의례집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의 기록을 통해 볼 때 고려시대에도 여러 의례집이 수차례 간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조선시대에도 이어져서 간행되었음을 쌍봉사에서 간행된 『천지명양수록재의

2 선문화연구 제10집

찬요』의 이제현의 발문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었다.

수륙재의 실행 목적으로는 첫째는 혜거 국사가 하산소로서 갈양사를 중창 시 실행한 낙성고불식이며, 둘째는 진정국사가 백련사, 만연정사, 조계사에서 실행한 것으로 적멸의 근원인 佛德을 깨닫도록 하였으며, 셋째는 治病을 위한 수륙재이며, 넷째는 액을 없애는 解厄水陸齋이다. 다섯째는 追善의 재의로, 공민왕이 죽은 승의공주를 위해 국행수륙재를 실행하는 등 현전하는 기록으로 가장 많은 횟수가 실행된 예이다. 여섯째로는 수륙재와 유사한 무차대회로 개설된 공신들을 위한 공신재이다. 일곱째로 광종이 실행한 무차수륙회로 罪業을 消滅하고자 한 것이다.

수륙재와 관련한 도량이나 당우는 혜거국사의 하산소로서 갈양사에 수륙도량을 개설한(971) 것과 선종 6년(1089)에 보제사에서 수륙당을 건립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조선 건국 직후에 국행수륙도량으로 진관사에 수륙사를 조성한 것이나 조선후기에 간행된 『無爲寺事蹟』, 『大菴寺誌』 등에 수륙사, 수륙전 등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여러 형태로 수륙재 관련 도량이나 당우(전각)가 계속 건립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水陸齋, 水陸儀禮集, 水陸堂, 水陸儀文

1. 머리말

수륙재는 우주공간에 널리 떠돌고 있는 有主, 無主 혹은 有住, 無住 孤魂을 극락왕생 하도록 천도한다는 데 목적을 둔 불교의례로 알려져 있다. 또한 천도의 목적 외에도 천지명양수륙재의 또는 법계성범수륙승회 등의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天地, 冥陽(이승과 저승), 水陸, 聖

凡(성인과 범인, 성스러움과 범상함) 등이 모두 어우러져 正覺을 이루고자 베풀어지는 의식이다.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에서는 “처지로 따지면 나와 남의 차별이 있겠지만, 마음은 미워하고 친근히 여기는 차이가 끊어지니, 원수든 친한 이든 모두 평등하고 범부와 성인이 원만하게 융화하는 수륙무차법회”라 정의하고 있다.¹⁾ 다시 말하면 수륙재는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자비를 베풀어 막힘이 없는 소통의 길을 열고, 우주공간의 성현과 범부중생을 모두 의식도량에 초청하여 보리심을 일으켜 평등하게 됨을 발원하고 기원하게 되며, 소통의 길을 열어어나가는 데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의례이다.

수륙재는 또한 자신을 정화하고 주변 환경을 정화하는 것으로써, 대우주관에 의한 구성요소가 서로 소통하고 융합하게 하여 죽은 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에게도 큰 공덕이 되어 큰일을 하는 인연을 맺게 해준다.²⁾ 오늘날의 인간과 자연만물이 어우러진 생태 문화적인 삶의 추구를 넘어선 경지를 이루고자 베풀어지는 대동의 의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화합과 소통, 융합의 기재이자 제의(축제)적인 성격을 지닌 수륙재를 최근 들어 각 지자체와 사찰에서 지역의 특색있는 축제 문화콘텐츠로 개발·활성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원도 동해 삼화사와 서울 진관사, 전남 영광 법성포, 인천수륙재(2004년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륙재를 복원하려는 움직임³⁾으로 인해 그에 대한 연구도 활기를 띠

1) 임종욱 역주,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강원: 동해시, 2007), 28면, “境有自他之殊 心絕冤親之異 乃号曰 冤親平等凡聖圓融 水陸無遮法會耳”

2) 홍윤식, 「수륙재의 구성과 의미」, 『삼화사와 국행수륙대재』(강원: 삼화사국행수륙대재보존회·동해시, 2009).

3) 이 가운데 진관사는 1982년 이래 꾸준히 설행 복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삼화사에서는 2005년부터 설행하였으며 2009년과 2010년 10월에는

4 선문화연구 제10집

고 있다. 하지만 수록재의 전모를 밝히거나 원형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은 그다지 활발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이루어진 수록재 연구 성과와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불교의례 가운데 하나인 수록재에 관한 연구로 윤무병을 필두로 홍윤식, 연제영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⁴⁾ 둘째는 수록재 의식집의 연구⁵⁾, 셋째는 미술사적인 관점에서 감로탱 등 불교미술과 연계한 연구⁶⁾와 넷째는 음악이나 무용적 관점의 연구⁷⁾를 들 수 있다.

근래 들어 설행되지 않았던 2박3일 과정을 재현하기도 하였다.

- 4) 윤무병, 「국행수룩재에 대하여」, 『백성옥박사송수기념 불교학론문집』(서울: 동국대학교, 1959).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불교의식』(서울: 문화재관리국, 1989).

김희준, 「朝鮮前期 水陸齋의 設行」, 『湖西史學』 제30집(충남: 호서사학회, 2001).

미등, 「삼화사 수록재의 설단과 장엄」, 『삼화사와 국행수룩대재』(강원: 삼화사국행수룩대재보존회·동해시, 2009).

양지윤, 『조선후기 수록재 연구』(서울: 동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3).

심효섭, 「朝鮮前期 水陸齋의 設行과 儀禮」, 『東國史學』 제40집(서울: 동국사학회, 2004).

연제영, 「수룩재 설행 형태 고찰」, 『제2회 법성포단오제 학술대회 법성포수룩대재』(전남: 법성포단오보존회, 2008).

전경옥, 「수룩재의 기원과 역사적 전개양상」, 『제2회 법성포단오제 학술대회 법성포수룩대재』(전남: 법성포단오보존회, 2008).

홍윤식, 위의 글(2009).

- 5) 남희숙, 『조선후기 불서간행 연구』(서울: 서울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4).

-----, 「16-8세기 불교; 의식집의 간행과 불교대중화」, 『한국문화』 제34집(서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4).

임중욱 역주, 앞의 책(강원: 동해시, 2007).

김형우, 「수룩재 의식집의 간행과 유포」, 『삼화사와 국행수룩대재』(강원: 삼화사국행수룩대재보존회·동해시, 2009).

- 6) 윤은희, 『감로왕도 도상의 형성 문제와 16, 17세기 감로왕도 연구: 수록재 의

이외에도 민속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것⁸⁾이나 서지학적인 관점⁹⁾, 시가문학적인 관점¹⁰⁾은 물론 최근 들어 문화콘텐츠와 관련한 연구¹¹⁾도 이루어지는 등 수륙재에 대한 연구가 세분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수륙재의 전체적인 의례구조에 대한 면

괘집과 관련하여』(서울: 동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4).

탁현규, 「18세기 삼장탱 도상과 양식 연구」, 『미술사학보』 제23호(서울: 미술사학연구회, 2004).

이용윤, 「朝鮮後期 三藏菩薩圖와 水陸齋儀式集」, 『美術資料』 제72·73호(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5).

연제영, 「영원사 甘露幀畫의 考察: 所依經典과 儀禮文을 중심으로」, 『博物館誌』 제12호(강원: 江原大學校中央博物館, 2006).

-----, 「儀禮的 觀點에서 甘露幀畫와 水陸畫의 內容 比較」, 『불교학연구』 제16호(서울: 불교학연구회, 2007).

김승희, 「감로탱화에 보이는 수륙재의 도상화 양상」, 『삼화사와 국행수륙대재』(강원: 삼화사국행수륙대재보존회·동해시, 2009).

- 7) 김재수, 「삼화사 국행수륙재의 범패와 작법」, 『삼화사와 국행수륙대재』(강원: 삼화사국행수륙대재보존회·동해시, 2009).

김응기, 「수륙재 의식 구성과 불교무용: 釋門儀範, 儀禮要集 上壇·中壇·下壇 儀式構成 中心으로」, 『禪武學術論集』 제13권(서울: 국제선무학회, 2003).

오성미, 『水陸齋 研究: 作法과 梵唄를 중심으로』(충북: 청주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2).

- 8) 연제영, 「甘露幀畫의 意味 考察: 追薦 對象을 中心으로」, 『역사민속학』 제19호(서울: 민속원, 2004).

- 9) 송일기·한지희, 「불교의례서「중례문」의 편찬고」, 『서지학연구』 제43집(서울: 서지학회, 2009).

김순미,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板本考」, 『東洋漢文學研究』 제17집(부산: 東洋漢文學會, 2003).

- 10) 김순미, 『조선조 불교의례의 시가 연구 - 범음산보집을 중심으로』(부산: 경성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5).

- 11) 고상현, 「종교 페스티벌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연구(1) - 수륙재를 중심으로」, 『영상문화콘텐츠연구』 2집(서울: 동국대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2009).

밀한 검토는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비교적 사료가 풍부하게 남아 있는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고려시대에 대한 연구는 하나의 주제로 연구, 조명되지 못했다. 고려시대 수록재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첫째, 기본적으로 고려사의 사료가 빈약하다는 점 때문이며, 둘째, 이로 말미암아 조선시대 자료와 견주었을 때 전체적인 모습을 그려보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려시대에 수록재에 대한 기록과 그 실행의 유형을 살펴보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¹²⁾ 그럼에도 고려시대 수록재를 살펴보려는 까닭은 수록재의 선행연구들이 비교적 사료나 회화, 유물 등이 풍부한 조선시대에 편중됨으로써 축소되거나 간과되었던 고려시대 수록재를 재조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려사』를 비롯하여 수록재 관련 의례집과 고려시대 승려와 유학자들의 개인문집 등에 전하는 사료를 바탕으로 첫째, 수록재 실행의 기본이 되는 수록의례집의 간행과 유포를 살펴보고, 둘째, 이러한 수록재가 실행된 형태와 목적을, 셋째로 수록재와 관련한 도량이나 당우의 건립 형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2) 김형우는 수록재는 기록을 통해서도 살필 수 있듯이 그 연원이 오래된 불교 의례임에도 조선시대 이전의 개최 사실이 매우 빈약할 뿐만 아니라 기록이 소략하여 어떠한 형태로 실행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김형우, 『高麗時代 國家的 佛敎行事에 대한 研究』(서울: 동국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2), 158면.

2. 수륙재 의례집의 간행

고려시대 수륙재와 관련한 의례집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의례집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이러한 의례집을 간행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먼저 알아보자. 수륙재에 관한 의례집을 간행한다는 것은 다양하게 설행되었던 수륙재 의례를 정립 또는 정례화하거나 수륙재 의례 자체의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의례집의 간행과 유포는 그 의례가 갖는 사회적 위상을 가늠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수륙재 의례문이나 의례집은 일반적으로 송나라 승려 志磐이 1269년에 찬술한 『佛祖統紀』, 「水陸齋」조에 따르고 있다. 즉, 양 무제가 꿈에 신승이 나타나 수륙대재를 베풀어 고통을 받는 육도 사생을 구제하라는 권유로 직접 수륙의문을 만들어 505년 금산사에서 설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역사적 사실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양무제 연기설에 의하면 양무제가 꿈을 꾸고 대장경을 열람한 것은 502년의 일이지만, 『염구경』이 중국에 전래된 것은 8세기이므로 남송의 宗鑑이 1237년에 편찬한 『釋門正統』 「利生志」에 전하듯 양무제가 법운전에서 경전을 열람하던 중 『염구경』을 읽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앞선 遵式(964~1032)의 『施食正名』이나 준식에게서 사사받은 仁岳(992~1064)의 『施食須知』에는 양무제가 수륙의문을 만들어 수륙재를 설행하여 중국에서 수륙재가 시작되었다는 인식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¹³⁾

13) 강호선, 「송원대 수륙재의 성립과 변천」, 『역사학보』 제206집(서울: 역사학회, 2010), 146 - 149면.

우리나라의 경우 11세기 고려 선종조 이전의 수록재 의례집에 대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수록재 의례집에 대한 첫 번째 기사는 『고려사』 선종 7년조에 최사겸이 송에서 수록의문을 구해왔다는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임진년 보제사 수록당에 불이 났다. 이보다 앞서 왕의 사랑을 받는 섭호부랑중 지태사국사 최사겸이 송나라에 가서 水陸儀文을 구해 와 왕에게 수록당을 짓도록 청하였는데, 공사를 마치기도 전에 화재가 났다.¹⁴⁾

위의 기사는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첫째로는 수록재 의례집과 관련하여 지태사국사 최사겸이 송에 가서 수록의문을 구해온 일이며, 두 번째로는 수록재와 관련한 당우를 건립하였다는 것이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4장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겠다.

전자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이 기사는 1월 임진일 즉 17일의 기사로, “이보다 앞서”라는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1089년 또는 그 이전에 수록의문을 구해왔으며, 그의 요청에 의해 수록당을 건립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최사겸은 『고려사』에 문종 32년(1078)에는 태사국의 종8품의 日官인 설호정으로, 그리고 12년 뒤인 선종 7년(1090)에는 지태사국사로 기록되어 있다.¹⁵⁾ 고려는 1022년 거란과 국교를 다시 맺

14) 『고려사』 권10, 세가10, 선종7; 『고려사절요』 권6, 선종사효대왕, 경오7, “壬辰普濟寺水陸堂火 先是 嬖人 攝戶部郎中知太史局事崔士謙 入宋求得水陸儀文 請王作此堂 功未畢而火”

15) 최사겸은 日者 즉 국가의 길흉을 점치는 日官으로 역서를 찬술하였으며, 선종9년(1092)에는 景陵의 虛缺한 곳을 보수하도록 아뢰어 시행하였으나 오히려 지덕을 늘렸다는 명목으로 죄를 추궁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전남 완도의 선산도로 유배되었다. 하지만 수록의문을 구해온 입송의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高麗史』 권10, 세가10, 선종9; 이기운, 「조선의 하

으면서 송과 공적인 교류는 50여 년간 단절되었다. 이후 문종의 친송 책으로 1071년 시랑 김제 등 110인의 사행을 송에 보내면서 재개되었는데 고려에서 송에 파견한 사신은 문종대 7회, 선종대 6회이다. 『고려사』에 최사겸이 등장하는 기간으로 보면 문종 32년(1078)~35년(1081)까지 매년 1차례씩 4회와 선종 원년과 2년(1085) 2회로 총 6회에 이른다. 이 중 가장 근접한 것은 선종 2년에 송 철종의 등극을 축하하는 賀登極을 목적으로 갔던 사신으로 최사겸이 동행하였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

어쨌거나 당시 고려에서는 송과 교류를 통해 선진문물을 유입하고자 하였으며, 그 가운데 서적구입이 두드러진다.¹⁶⁾ 예를 들어 선종 2년(1085) 4월에 대각국사 義天(1055~1101)이 입송하여 모후의 간청으로 이듬해 6월 귀국하면서 불교전적 3천여 권을 가지고 왔다. 귀국후 송·요·일본에서 수집한 4천여 권의 책을 목록으로 『新編諸宗教藏總錄』(이하 『교장총록』)을 만들었다. 이 가운데 권2에 송나라 인악이 저술한 『시식수지』가 포함되어 있음은 주목된다.¹⁷⁾ 『시식수지』는 시아귀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악도에 떨어진 아귀를 위해 베푸는 시아귀회는 당대를 거치면서 수륙재와 혼용됨으로써 중국에서는 시아귀회를 시식회, 수륙회라고도 하였다. 인악은 『시식수지』에서 당시 설행되던 시식이 『열반경』 「梵行品」, 『南海寄歸傳』 「受齋戒軌則章」, 『염구경』에 기반하고 있으며, 재가자 출가자 모두 부처의 제도에 따라 향

늘을 살폈던 서운관에 대하여」, 제2회 고천문위크숍논문집 『하늘이 열린 날, 天文을 얘기하다』(대전: 한국천문연구원, 2008), 84 - 94면.

16) 김상기, 「宋代에 있어서 高麗本の 流通에 對하여」, 『아세아연구』 제8권 2호 (서울: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1965), 271 - 279면.

17) 『한국불교전서』 4권(서울: 동국대출판부, 2002), 691면.

상 법식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¹⁸⁾ 이런 점에서 보자면 『시식수지』도 수록재의 일종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천의 『교장총록』 외에는 언급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목록으로만 그친 게 아닌가 한다.¹⁹⁾

의천과 최사겸이 비슷한 시기에 입송하고 귀국하였다. 하지만 의천은 『교장총록』에 『시식수지』를 목록에 넣었으나 수록재 의례집에 주목하지 않은 듯 하다. 또한 『시식수지』의 우리나라에서의 활용예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의천은 1097년 국청사의 완공과 함께 주지로 부임하여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하지만 그의 입적으로 천태종은 급격히 쇠락하였다는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최사겸은 수록의문을 구해왔다. 게다가 황제에게 수록당의 건립을 청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그가 왜 수록의문을 구해왔는지는 추론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를 유추해 보면, 고려에서 수록재가 설행되고 있었음에도 당시 행해지는 수록재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정례화된 의례집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았나 한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이보다 앞서 광종이 귀법사에서 직접 설행하고 혜거국사의 하산소로서 갈양사에서 설행된 예를 보더라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반면에 다양한 의례가 설행되었음에도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의례, 즉 통합성 의례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는 불교의례로 인한 폐해를 간언하는 최승로의 주장에서도 유추할 수 있

18) 牧田諦亮, 『中國近代佛敎史研究』(京都: 平樂寺書店, 1953), 177 - 178면; 강호선, 앞의 논문(2010), 148면 재인용.

19) 이는 박상국이 지적한 것처럼 『교장총록』에 수록된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가 거란본을 모본으로 번각하였으며, 모후가 죽자 의천의 정치적 입지가 축소되어 널리 유통되지 않았다. 「의천의 교장」, 『보조사상』 11집(서울: 보조사상연구원, 1998), 92 - 94면.

지 않을까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입송 당시의 중국에는 황실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수륙재가 성행하던 시기였으므로 중국에 갔던 최사겸이 이를 보거나 듣고 수륙재와 관련한 의례집을 구해왔을 것으로 사료된다.²⁰⁾ 하지만 무엇보다도 수륙의문의 입수와 수륙당 건립의 청을 올리고 이를 선종이 받아들인 까닭은 선종의 정치적 고려도 한 몫 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당시 정치적 상황은 순종이 즉위한 지 3개월만에 승하하였는데, 이를 두고 현종의 넷째 아들이자 문종의 동생인 평양공 왕기파와 인주 이씨 세력간의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때 왕위에 오른 선종은 왕위 계승과 동시에 민심수습과 사원세력의 흡수 등을 시급한 정책으로 삼았다. 선종은 재위 11년간 불정도량, 능엄도량, 금강명경도량을 비롯한 19종의 각종 불교의례를 38회에 걸쳐 설행하였는데, 이는 왕권의 강화와 호국적 성격을 반영한 것이었다.²¹⁾ 보제사에 수륙당을 건립하려는 것도 이러한 정책기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그의 동생이기도 한 의천이 흥왕사에 교장도감을 설립한 것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어쨌든 최사겸이 구해온 수륙의문이 고려시대의 수륙재를 정형화하는 데 일조를 하였으며, 이미 설행되던 수륙재에 또 하나의 참고용 의례집으로 쓰였으며, 통합용 의례로 행해지지 않았나 한다.

그렇다면 최사겸이 구해왔다는 수륙의문이 어떤 형식과 내용이었는

20) 홍기용은 그 이후 이 『수륙의문』을 기초로 한층 체계화된 의문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원·명대 수륙법회도에 관한 고찰」, 『미술사학연구』 제218호(서울: 한국미술사학회, 1998), 45 - 48면.

21) 박용진, 「고려중기 의천의 불교의례와 그 인식」, 『한국중세사연구』 제22호(서울: 한국중세사학회, 2007), 151 - 152면.

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의 성격이 밝혀지면 고려 시대에 설행된 수록재의 단면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수록의문이 수록재와 관련한 의례집을 통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록의문』이라는 단일 의례집인지 또는 수록의문이란 용어를 사용한 의례집을 지칭하는 것인지부터 규명되어야 한다. 수록의문으로 기록된 기사들을 살펴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먼저 중국의 예를 살펴보면, 『불조통기』에 양무제가 수록의문을 지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후에는 11세기경인 송대에 수록의문이 활발하게 조성되었다. 송나라 신종 희녕년간(1068~1077)에 東川楊鏗이 『水陸儀』 3권을 찬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북송시대 편찬된 흔히 북수록이라 하는 『천지명양수록의문』을 말한다. 양악은 사천사람으로 그 지역에 구전되어 오던 수록재를 기반으로 정리하여 찬술했다.²²⁾ 이 수록의문은 금나라 때 자기가 오류를 바로잡고 刪削하여 의문 3권을 찬집하였다.²³⁾ 또한 宗頤(1009~1092)이 諸家の 의문을 모아 새로 『수록의문』 4권을 완성하였다. 이들은 정확한 찬술 연대를 알 수 없다.²⁴⁾ 하지만 제가의 의문을 모아 새로 완성한 만큼 여러 사람이 지은 수록의문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고려시대의 수록재 의례집에 대한 기사를 통해 그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국의 예에서는 최사겸의 입송 이전에 씌여진 수록의문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선례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후대의 기록을 통해

22) 송일기·한지희, 앞의 논문, 121면.

23)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편, 『수록재현황조사보고서』(서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2010), 104면.

24) 강호선, 앞의 논문, 146 - 148면.

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사겸의 수록의문 입수 이후 수록재 의례집에 관한 기록은 거의 찾을 수 없다가 150여 년이 지나서, 이제현이 쓴 混丘(1251~1322)의 비명에 나타난다. 비명에는 일연의 제자 혼구가 수록의문을 새로 엮어 『신편수록의문』 2권을 펴내었다고 한다.

스님은 침착하고 중후하여 말이 적으며 학문은 보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시와 문에 매우 뛰어났다. 『語錄』 2권, 『歌頌雜著』 2권, 『新編水陸儀文』 2권, 『重編指頌事苑』 30권의 저서가 있어서 총림에서 유행하고 있다.²⁵⁾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수록의문이 전해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을 새로 엮어 『신편수록의문』을 저술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한 수록의문이 최사겸이 송나라에서 구해온 것과 유사한 것을 엮은 것인지, 아니면 여타 수록재 의례집을 엮어서 신편이라 이름을 붙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현재로서는 수록의문이라는 의례집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수록의문이 여러 의례집을 통칭하거나 이칭의 의례집을 줄여서 표현한 예를 살펴보겠다. 첫째, 혼구의 『신편수록의문』 기사보다 20여 년이 지난 뒤인 1342년 이제현이 쓴 발문의 기록으로, 1563년 쌍봉사에서 간행된 영남대 고문헌실 소장 『天地溟陽水陸齋儀纂要』(이하 『찬요』)의 발문을 통해서이다.

25) 이제현, 「有元高麗國曹溪宗慈氏山瑩源寺寶鑑國師碑銘 并序」, 『동문선』 권118, 碑銘, “師沉厚寡言 學無不窺 爲詩文富贍 有語錄兩卷歌頌雜著二卷 新編水陸儀文二卷 重編指頌事苑三十卷 行叢林間”

이 水陸儀文을 만든 까닭은 예전에도 여러 본이 있어 세상에 유행하였으나, 혹은 잃어버리거나 혹은 상한 것이 많았다. 지금 죽암공이 꿈에 감응하여 경론의 본질을 살피고 다르고 같음(異同)을 나누어 바로잡아 무릇 1권 54편으로 완성하였다. … 지정2년(1342) 3월 일 … 이제현발²⁶⁾

이 내용은 고려후기인 충혜왕 3년(1342)에 죽암 유사가 편찬한 『찬요』 1권에 익재 이제현(1287~1367)이 쓴 발문이다. 『찬요』의 발문에 수록의문으로 명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의 수록의문이란 수록재를 지내는 데 사용하는 의례문이 아니라 『천지명양수록재의찬요』를 지칭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여러 본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수록재 의례집 일반을 통칭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여러 본들이 있었지만 잃어버리거나 상한 것이 많아 이들을 살피고 나누었다고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 이전에도 수록재 의례집은 다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1권 54편으로 완성하였다는 대목에서는 현존하는 판본 중 54편으로 전하는 죽암이 편찬한 『천지명양수록재의』 등 같은 편수의 다른 의례집의 내용과 비교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죽암이 이 의례집의 명칭을 달리하면서 같은 편수로 엮은 이유 등도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송광사 성보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중종 26년(1531) 순천 송광사에서 개간된 『天地冥陽水陸雜文』의 서문과 발문을 통해서이다.

文의 쓰임은 매우 커서 기원과 제사에는 반드시 서책을 갖추어 고해야 한다. 이로써 成禮를 보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수록의문은 蕭武가 범운전에서 친

26)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此水陸儀文所以作也 舊有數本行於世 或失於煩 或傷於簡 今竹菴猷公感於夢寐 質之經論考匪異同定爲一卷凡五十有四篇 … 至正二年三月日 … 臣李齊賢跋”

히 저술한 것이다. … 수록의문은 설당총통선사가 이미 간행하여 세상에 유행시켰으나, 지금 召請祭文을 구하였는데 바르고 믿을만하여 다시 간행하고자 한다. … 대덕 계묘(1303) 평강 곤산 천엄 무외 유대 근서

수록의문은 광본과 약본이 하나가 아니니, 자기라고도 하고, 지반이라고도 하고, 중례라고도 하고, 결수라고도 한다.²⁷⁾

이 발문은 弘治 9년, 즉 연산군 2년(1496)에 쓰여진 것이다. 여기에 서도 알 수 있듯이, 수록재와 관련된 의례집을 통칭하여 ‘수록의문’이라 하며, 그 예로 소무가 편찬한 ‘수록의문’은 『수록잡문』을, 설당총통선사가 간행한 ‘수록의문’은 『천지명양수록의문』을 가리킨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어서 수록의문은 광본과 약본이 있는데, 자기나 지반, 중례, 결수 등 여러 가지로 일컬어졌음도 알 수 있다.

셋째, 권근은 『양촌집』의 「수록의문발」에 “『수록의문』 37본을 간행하고는 無遮平等大會를 세 곳에 베풀게 하고, 각각 『연화경』 1본, 『儀文』 7본씩을 비치하되, 영구히 그곳에 보관해 두고서 거행하게 하였다.”고 하고 있다. 즉, 조선 태조가 새로운 왕조를 건국한 후 무참하게 죽인 고려 왕씨들의 천도를 위해 『수록의문』 37본을 간행하고 비치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차평등대회를 베풀도록 하였다는 것이다²⁸⁾. 이 내용은 건문 3년(1401, 태종 1년)에 간행된 『불설염구경천지

27) 『天地冥陽水陸雜文』, “文之爲用大矣哉 故凡禱祠之際 必具冊書以告之 不然未見其成禮也 水陸儀文 蕭武於法雲殿親自著述 … 水陸儀文 雪堂揔統禪師既已版行于世 今得召請諸文 文義兼優 諒非苟作 復欲刊之 … 大德癸卯住平江岷山薦嚴無外惟大謹序”

“水陸儀文 廣略非一焉 日仔夔 日志槃 日中禮 日結手”

28) 권근, 『양촌집』 권22, 수록의문발, 跋語類, 「水陸儀文跋 奉教撰」, “又印水陸儀文三七本 命設無遮平等大會于三所 各置蓮經一本 儀文七本永藏其地”

명양수록의문』에 권근이 쓴 발문에도 “수록의문” 또는 “의문”으로 표현하고 있다.²⁹⁾

넷째, 태종 1년(건문 3년, 1401) 조선초기의 판본을 가정 12년(1533) 송광사에서 복각한 원각사 소장본 『천지명양수록의문』에는 『천지명양수록의문』을 수록의문이라고 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명을 내리신 가운데 여러 산중에 수록도량을 두고 매년 봄과 겨울에 수록회를 설행하라 하였고, 또 명하시어 양대중이 지어 중간한 ‘수록의문’을 간인하여 수록재를 거행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자비로운 刹生의 마음으로 ‘수록의문’을 변함없이 전하고자 하심입니다.”라고 하고 있다.³⁰⁾

다섯째로 범어사에 소장된 조선 중종조에 간행된 해인사 간본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를 통해 찾을 수 있다. 이 의례집은 고려시대 승려인 竹庵 猷公이 水陸齋의 기원과 의식절차 등을 모아 편집한 것으로, ‘設會因由篇’으로부터 ‘普伸回向篇’에 이르기까지 총 5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실려 있는 金守溫(1410~1481)의 발문에 따르면, 당시 貞懿公主가 良孝公의 喪을 마치고 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수록의문』과 『結手文』과 『小彌陀懺』과 『妙法蓮華經』을 간행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언급한 『수록의문』은 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조선조에 들어서도 『수록의문』은 계속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 숙종 1년(1675)에 간행된 화장사판본인 『수록의문촬요』가 경남 고성 옥천사에 전하고 있어, 고려시대 『수록의문』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시대 수록의례집의 간행을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29) 『불설염구경천지명양수록의문』 발문.

30) 『천지명양수록의문』, “命於中外諸山多置水陸道場 每歲春冬大設其會 又命重刊楊大中所撰水陸儀文印施舉行 且傳求久慈濟利生之心廣大 … 建文三年秋八月丙子 … 權近奉教跋”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조선시대에 중간된 내용 중 고려말에 활동한 죽암유사가 엮은 수록재 의례집을 통해서이다. 죽암은 고려후기 승려로 이색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의 문집 『목은시고』 35권의 ‘금주음’ 등에 따르면, 판조계사를 역임하며 왕실의 내원과 역정사에서 머물렀고, 연복사의 주지를 역임하였다고 한다.³¹⁾ 현존하는 수록재 의례집 가운데 고려 竹庵 猷公이 편찬하여 대광사(1514), 안동 광흥사(1538), 용인 서봉사(1581) 등에서 펴낸 『수록무차평등재의촬요』나 해인사(1641), 순천 송광사(1642), 함흥 개심사(1658) 등에서 펴낸 『천지명양수록재의촬요』, 간행처(1496)를 알 수 없는 『천지명양수록잡문』, 황해도 불봉암(1586), 신흥사(1661) 등에서 펴낸 『천지명양수록재의』 등이 전하고 있다.³²⁾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무차수록회의 정형은 고려 선종 때 최사겸이 송에서 수록의문을 구입하고 수록당을 건립한 때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수록도량이나 광종대에 이미 정적을 제거한 죄업을 녹이고 정치적인 원한을 무마하기 위해 수록무차회를 설행한 적이 있다. 그러므로 최사겸이 송나라에서 구해 온 수록의문은 일종의 참고서가 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고려시대 의례집과 관련한 기사를 통해 수록의문은 특정 의례집을 지칭하거나 수록재 관련 의례집의 통칭으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사겸이 중국에서 들여온 수록의문이 『수록의문』이라는 명칭의 의례집인지, 또는 『천지명양수록의문』의 약칭인지, 또는 제3의 다른 본인지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견되는 사료에 따라 그 성격이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31) 송일기·한지희, 앞의 논문, 128면.

32)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편, 앞의 책, 89 - 105면.

이러한 수륙의례집을 바탕으로 행해지는 수륙재는 다양한 목적과 유형으로 설행된다. 일반적으로 불교관련 재의의 설행 내용은 재의의 목적이나 시간과 장소도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설행 주체들의 노력과 공양물에 따라 전개되어 왔던 것으로 보여진다. 수륙재의 설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짐을 알 수 있다.³³⁾ 따라서 다음에서는 고려시대 수륙재의 설행형태와 목적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수륙재의 설행 형태와 목적

1) 수륙재의 설행 형태

수륙재의 설행 형태와 목적을 살펴보기에 앞서 고려시대 기사들을 보면, 수륙회, 수륙재회, 수륙재, 수륙도량 등의 여러 명칭이 보이고 있다. 회와 재와의 성격이 다른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의문은 고려시대에 설행된 불교행사나 의례들에 대해 살펴보면 풀릴 수 있다. 고려시대에 행해진 불교행사나 의례는 주로 법회, 재, 도량 등으로 불렸다.

道場은 bodhi - maṇḍa, 즉 보리도량으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곳을 의미하였다. 또한 불교를 교설하거나 불도를 수행하는 장소를 이르는 말이나 불사가 설행되는 자리를 일시적으로 修法行道의 장

33) 계과 성능, 『仔夔文節次條列』, “凡觀設齋 或七晝夜 或五晝夜 或二晝 卽排日者 物力之多小 見機所辦爲宜” 『한국불교전서』 제11권(서울: 동국대출판부, 1992), 254면 1단.

소로 만든다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法會 또는 會는 dharma - sanghīti로, 齋會, 불사라고도 하며, 대체로 불보살을 받들며 그 가르침인 경전을 강독하거나 교설하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성격과 불보살을 칭송하는 불사의 완성을 경축하는 모임의 성격을 띤다. 齋는 Uposadha로 '삼가다', '부정을 피한다'는 의미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계율을 지키는 것을 뜻하며, 불보살에 공양을 올리는 佛事나 佛供 법회를 일컫기도 하였다. 또한 죽은 이를 위해 천도하는 행사도 재라고 하였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법회와 재, 그리고 도량과 법석은 서로 혼용되는 예가 많아 그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수륙회나 수륙재회, 수륙재, 수륙도량 등도 마찬가지이다.³⁴⁾ 따라서 본고에서도 회와 재 등 각기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데 기본 사료에 나온 명칭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개념상의 구분은 하지 않았다.

고려시대에 어떻게 수륙재가 설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 단서는 『고려사』에 무차수륙회로 명기된 최초의 기사인 성종 2년(982)에 최승로(927~989)가 상소문과 함께 올린 「시무28조」를 통해서이다. 최승로가 올린 「시무28조」에 수륙재의 설행 형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제가 듣건대 전하께서는 功德齋를 베풀고 혹은 몸소 茶를 갈기도 하시며 혹은 친히 밀(麥)도 찢으신다 하는데 저의 우매한 생각에는 전하의 몸을 근로하시는 것은 깊이 애석한 일입니다. 이 폐단은 광종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참소를 믿고 무죄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불교의 인과응보설에 미혹되어 자기의 죄

34) 김형우, 『고려시대 국가적 불교행사에 대한 연구』(서울: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2), 27 - 28면; 안지원, 『고려의 국가 불교의례와 문화 : 연등·팔관회와 제석도량을 중심으로』(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7 - 8면.

업을 없애고자 인민의 고향을 짜내서 불교 행사를 많이 거행하였으며 혹은 비로자나삼회법을 베풀거나 혹은 구정에서 승려들에게 음식을 주기도 하였으며 혹은 귀법사에서 無遮水陸會도 베풀었습니다. 매양 부처에게 齋를 올리는 날에는 반드시 걸식승들에게 밥을 먹였으며, 또는 內道場의 떡과 실과를 가져다가 거지에게 주었으며, 혹은 혈구산과 마이산 등에 새로 못을 파서 어량을 설치하고 물고기를 방생하는 장소로 만들었으며, 1년에 네 차례씩 사신을 파견하여 그곳의 사원들로 하여금 불경을 개강하게 하고, 또한 살생을 금지하며 궁중에서 쓰는 육류를 도살부에게 도살시키지 않고 시장에서 사다가 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소 신민들로 하여금 모두 다 懺悔를 시켰으므로 미곡과 땀나무와 숲, 건초, 두류(豆)를 메며 지고 가서 서울과 지방의 길가에서 나누어 주게 한 것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나 벌써 참소를 받고 사람을 초개 같이 보고 죽인 그 시체가 쌓이고 쌓여 산과 같았고 항상 백성들의 고향이 마르도록 짜내어 불공과 재를 베풀었습니다.³⁵⁾

이 기사는 광종 14년(963) 7월에 창건된 귀법사에서 무차수륙회가 설행되었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 상소문에 따르면, 광종(925~975)대에 무차수륙회를 비롯한 비로자나삼회법, 飯僧 등의 불사가 빈번히 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량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든가 설행 형태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고려사』의 광종 19년(968)의 기사도 최승로가 올린 상소문에서 말

35) 『고려사』 권93, 열전 제6, 최승로전, “竊聞聖上 爲設功德齋 或親碾茶 或親磨麥 臣愚深惜聖體之勤勞也 此弊始於光宗 崇信讒邪 多殺無辜 惑於浮屠果報之說 欲除罪業 浚民膏血 多作佛事 或設毗盧遮那懺悔法 或齋僧於毬庭 或設無遮水陸會於歸法寺 每值佛齋日 必供乞食僧 或以內道場餅果 出施丐者 或以新池 穴口與摩利山等處魚梁 爲放生所 一歲四遣使 就其界寺院 開演佛經 又禁殺生 御廚肉膳 不使宰夫屠殺 市買以獻 至令大小臣民 悉皆懺悔 擔負米穀柴炭菽豆 施與中外道路者 不可勝紀 然以旣信讒慝 視人如草莽 誅殺者堆積如山 常竭百姓膏血 以供齋設”

하고 있는 수륙재와 유사하게 기술되어 있다.

왕이 참소하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을 죽였으므로 내심으로 가책을 받게 되었다. 이리하여 자기 죄악을 덜기 위해 齋會를 널리 베푸니 많은 무뢰배들이 가짜로 출가하여 배부르게 먹을 것을 생각하고 모여 들었다. 이따금 떡, 쌀, 콩, 팥나무와 숫 등을 가지고 서울과 지방의 길거리에서 일반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없이 많았다. 또 放生所를 많이 설치하여 놓고 부근 사원에서 불경을 강연하였다. 동물의 도살을 금지하고 왕궁에서 쓰는 고기도 시장에서 사들였다.³⁶⁾

위의 두 기사를 살펴보면, 최승로가 상소문에 언급하였던 무차수륙회와 ‘광종 무진 19년’에 베풀어진 齋會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기사를 통해 최승로가 언급한 무차수륙회는 광종 19년(968)에 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³⁷⁾

이들 두 기사를 종합해 보면, 무차수륙회의 설행 형태와 목적을 알 수 있다. 먼저 그 형태를 보면, 첫째로는 재가 베풀어질 때 재의 본래적 의미와 부합되게 승려에게 공양을 올리는 飯僧이 이루어졌으며, 둘째로는 일반 백성들에게도 음식이나 곡식, 팥나무와 숫 등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는 재회가 열리는 장소뿐만 아니라 서울과 지방 등에 고루 나누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로는 왕궁에서의 도살 즉 살생을 금지시켰으며, 넷째로는 살생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방생을 위한 방생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다섯째로는 방생소가 설치된 인근의 사찰에 1년에 네 차례씩 불경을 강연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광종이 개최한

36) 『고려사』 권2, 세가2, 광종 무진 19년, “王信讒多殺內自懷疑 欲消罪惡廣設齋會 無賴輩詐爲出家 以求飽飫尙者至 或以餅餌米豆柴炭施與京外道路不可勝數 列置放生所 就傍近寺院演佛經 禁屠殺肉膳亦買市廛以進”

37) 연제영, 앞의 논문(2004), 341 - 342면.

무차수륙회의 실행 목적은 일차적으로는 광종 자신이 무고한 많은 이들을 살해한 과보(죄업)를 소멸시키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교의례인 수륙회나 각종 재를 통해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달래고 민심을 통합하고자 한 목적도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수륙재의 실행 목적

다음으로 수륙재의 실행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수륙재의 실행 목적에 관한 기사는 실행 내용이나 형태 등에 대한 기사보다는 고려사나 개인문집류 등 여러 자료들에서 비교적 다양한 내용이 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실행 목적을 정리해 보면, 첫째는 낙성고불식이며, 둘째는 佛德證得, 셋째는 治病, 넷째는 액을 없애는 解厄, 다섯째는 薦度, 여섯째는 공신들을 위한 공신재이며, 일곱째는 滅罪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 번째 기사는 광종 22년(971)에 갈양사에서 惠居 國師가 수륙도량을 개설하여 낙성고불식을 한 예이다.

개보 3년(광종 21, 970) 경오년 봄에 국사가 이르기를, “수주부(현 경기도 수원)의 葛陽寺는 산이 밝고 물이 고와 국가 만대의 복된 터전입니다. 원컨대 구획해서 복을 비는 곳으로 삼으소서.”라고 하였다. 왕이 허락하고 내탕금을 내려 빨리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국사가 명을 받아 문인인 전 광명사 주지 普秀에게 이를 감독하도록 하여 불상과 탑과 전각과 누각을 지으니 장대하고 아름다웠다. 이듬해 신미년(광종 22, 971) 가을에 준공하였다. 이로 인해 水陸道場을 개설하여 왕이 태자에게 가서 낙성하게 하였다.³⁸⁾

38) “開寶三年庚午春 國師奏曰 水州府葛陽寺山明水麗 爲國家萬代福祉 願以劃爲

혜거 국사는 고려조에서 최초로 국사와 왕사를 지낸 인물이다. 갈양사에서 수륙도량을 개설한 까닭은 혜거국사가 72세의 나이로 이곳을 下山所로 삼았기 때문이다.³⁹⁾ 또한 국사의 하산소였으므로 내탕금을 하사하여 불사를 도왔고 태자를 직접 보내 낙성식을 한 곳인 만큼 수륙재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수륙도량을 개설”하였다는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는 앞에서 도량, 재, 법회 등의 설명에서 언급하였듯이, 고려시대에 설행된 각종 의례 중 하나로서 수륙도량을 개설했음을 의미하고 둘째는 혜거 국사의 하산소로서 갈양사를 수륙재 설행을 위한 사찰로 갖추었음을 의미한다고도 해석될 수 있다. 후자는 수륙재 도량의 건립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전자의 경우에는 국사가 하산하기 1년 전에 수륙도량을 마련하여 낙성식을 거행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임신년(광종 23, 972) 봄에 국사가 누차 물러나기를 청하여 인장을 바치고 表를 올리기에 이르니 왕이 영을 내려 허락하였다. 3월 15일에 왕이 演福寺에 행차하여 절에 있는 모든 승려에게 齋를 베풀고 겸하여 전별 의식을 베풀고는 문무반을 이끌고 작별하였다. 다음 날 길을 떠나니 中書舍人 李鑑喬에게 명하여 남으로 화산 갈양사로 돌아가는 데 따라가도록 하였다. 왕이 조 500석과 면포 60필, 유원다⁴⁰⁾ 100각 및 그릇 등을 내리고 또 田結 500석을 하사하여 복을 비는 재산

祝釐之所 上可之 賜帑金 亟旣厥事 國師承命 使門人前住廣明寺住持普昱監之 修緝象塔殿樓 輪焉奐焉 明年辛未秋 竣功 因設水陸道場 上命太子往而落之” 한국역사연구회 편, 「갈양사혜거국사비」, 『역주나말여초금석문』(상)(서울: 헤안, 1996), 343-344면; 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

39) 허홍식, 「葛陽寺 惠居國師碑」, 『高麗佛敎史研究』(서울: 일조각, 1990), 588-589면.

40) 유원다는 『불교조선총보』에 비문 전문이 실린 이후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 하지만 『고려사』의 기록에 비추어볼 때 ‘뇌원다’의 오기가 아닌가 한다. 따

을 넉넉하게 하였으며 또 ‘興福佑世’의 휘호를 내렸다.⁴¹⁾

혜거 국사가 수륙도량을 개설한 이듬해인 972년 봄에 국사의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여러 차례 청하여 왕의 허락을 받고는 3월 15일 연복사에서 전별 의식을 베풀고 갈양사로 내려왔다. 이때 왕은 조 500석과 면포 60필, 뇌원다 100각 및 그릇은 물론 전걸 500석을 하사하여 복을 비는 祝釐의 밑천으로 삼도록 넉넉하게 하였다고 하고 있다. 이로 보아 갈양사의 수륙도량은 낙성식만을 위한 수륙도량이 아니라 계속해서 국가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사찰로서 기능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륙도량도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된다.⁴²⁾

둘째, 불덕증득을 목적으로 설행된 것으로, 13세기에 활동한 천척(1206~?)의 『湖山錄』 중 「水陸齋疏 王侍郎讚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계의 성품을 말하고 법계의 자비를 일으키는 것은 오직 일심일 뿐이로다.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고 중생과 즐거움을 더불어 하는구나. 모든 부처님이 아니라면 누가 대보리심을 발하게 하여 모두 구경열반의 언덕에 오르게 하겠는가!

라서 필자는 『고려사』의 예를 따라 뇌원다라 하였다. 뇌원다는 고려시대 차의 일종으로, 왕실의 애용품으로 공을 세운 신하에게 하사하는 하사품이나 외국에 공물로 보내는 예물, 또는 부의품 등으로 사용되었다. 류건집, 『한국차문화사』(상)(서울: 이른아침, 2007), 136 - 141면.

41) “壬申春 國師屢乞退養 至於納印上表 王優詔許之 以三月十五日 上駕幸演福寺 設闍院僧齋 兼乎寅餞之儀 率文武班辭別 明日啓程 命中書舍人李鎮喬 陪行南歸花山葛陽寺 王賜租五百石·綿布六十匹·月留原茶一百角 并器皿等 又賜田結五百碩 以贍祝釐之資 又賜興福佑世之徽號”, 한국역사연구회 편(1996), 앞의 책, 344면.

42) 김희준, 『조선전기 수륙재의 설행』(충북: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10 - 11면.

간절히 아난이 제도할 법을 청하자 석가세존께서 수륙의 방편을 여셨다. 양 무제가 처음 이 의식을 시행한 것은 대개 신승이 홀연히 꿈속에서 열어준 것이다. 당나라의 도영 법사가 이 제도를 계승한 것은 신이한 사람이 좌중에 나타나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중략)… 모두 측은하여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두루 평등한 無遮法會를 여니, 또한 행하기 어려움을 행하게 하고 버리기 어려움을 버리게 합니다. 비록 머리와 눈, 골수와 뇌가 부서지더라도 아직 제도되지 못한 것은 제도되도록 하고 안온하지 못한 것은 안온하게 하니, 어찌 어류와 패류, 날짐승, 들짐승을 가리겠는가. 그러므로 모두 물록 각자의 믿음의 쌀알에 의지하면 나라의 공간에 있는 여분의 재산을 번거롭게 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백련도량에서 열어 시행하고 다음에는 만연정사에서 경영하였으며 삼이라는 숫자를 갖추고자 덕화를 받아서 닭아 다시 조계산에서 설행하였는데, 한결같이 의식의 범절은 모두 불전을 따랐도다. 간절히 원하옵니다. 무릇 펄펄 끓는 고탕스런 지옥과 그리고 절뚝거리고 물어뜯는 축생, 혹 어두운 곳이나 유습한 곳의 귀신들, 혹은 귀하거나 천한 인간계와 천상계 내지는 네 발과 많은 발, 유형과 무형에 이르기까지 모두 寂滅의 근원을 알도록 하여 영원한 부처님의 덕을 證得하게 하소서.⁴³⁾

이것은 천태종 중흥조 요세의 가르침을 이은 천책이 왕시랑의 재를 찬한 것이다. 천책은 백련사의 4대 사주로서 23세인 1228년 백련사로 출가하여 천태지의를 연모하며 그의 교설을 실천하였던 스님이다. 스

43) “稱法界性 起法階慈 惟一心耳 拔衆生苦 與衆生樂 非諸佛何 苟發廣大菩提心 咸登究竟涅槃岸 切以阿難請津梁之法 釋尊開水陸之科 梁虎帝始啓此義 盖神僧歛通於夢裏 唐英師繼行斯制 由異人現告於座中 … 因殫惻隱不忍之心 庶立平等無遮之會 且難行能行難捨能捨 雖頭目髓腦之敢辭 若未度令度 未安令安 何鱗介羽毛之斯擇 所以頓約私田之信粒 不煩公廩之餘財 始則啓行於白蓮道場 次則卜營於万淵精舍 三者備矣 熏修更設於曹溪 一以貫之 儀範皆遵於竺典 伏願 凡隴“虎”之苦獄 及跋“鬻”之傍生 或鬼神幽陰 或人天貴賤 乃至四足多足有形無形 皆知寂滅之源 咸證真常之惠”, 리영자, 『천책스님의 호산록』 (서울: 해조음, 2009)에 실린 원문과 번역문을 참고로 하였다.

님이 언제 이 疎를 지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그가 문사들과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1250년대 말부터 1260년대까지의 약 10여 년 사이에 쓴 것이 아닌가 한다.⁴⁴⁾ 이 글에서 수록재를 행한 세 곳에서 설행된 수록재는 다른 수록재들과는 달리 천도나 치병, 업장소멸 등의 목적이 아닌 정각인 寂滅의 근원을 佛德으로 證得하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다. 불덕의 증득도 지옥중생, 방생인 축생, 유형이든 무형이든 일체의 모든 것을 언급하고 있음도 수록무차평등재회의 본래 의미를 잘 말해주고 있다.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각자의 믿음의 쌀알에 의지하면 나라의 공간에 있는 여분의 재산을 번거롭게 하지 않는다’는 대목이다. 이는 이전에 설행되었던 수록재가 국가의 재정으로 설행하였을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면서 각자가 믿음으로 재비를 마련하여 수록재를 설행한다고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수록재 설행이 한 사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백련사, 만연정사, 조계사 세 사찰에서 이어서 설행했다는 기록도 주목된다.

셋째, 병을 치유하는 치병을 위한 목적으로 설행된 수록재이다. 충목왕 4년(1348) 11월 초하루에 공주가 왕의 병을 치유코자 전 찬성사 이군해를 천마산에 보내 수록회를 베풀었다.

11월 초하루 계사일, 공주가 왕의 병으로 인해 전 찬성사 이군해를 천마산에 보내어 수록회를 베풀고 기도하였다.⁴⁵⁾

충목왕(1337~1348)은 12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았는데, 1344년 충

44) 허홍식, 『진정국사와 호산록』(서울: 민족사, 1995), 30 - 31면.

45) 『고려사』 권37, 세가37 충목왕4, “十一月癸巳朔 公主以王疾 遣前贊成事李君佺 設水陸會於天磨山禱之”

혜왕이 죽자 8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5년간 재위(1344~1348)하였다.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혼인도 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후사는 없었다. 혈육으로는 충혜왕의 비이자 어머니인 貞順淑儀公主, 즉 德寧公主만이 있었다. 따라서 위에서 말하는 공주는 모후인 덕녕공주를 말한다. 이 해 10월에 왕이 편치 않아 건성사 등 사원이나 사사집으로 거처를 자주 옮겼으며, 11월에 충목왕을 위해 모후 덕녕공주가 수록재를 베풀었으나, 다음달 12월 정묘일에 결국 김영돈의 집에서 죽었다. 이군해(1297~1364)는 李焜으로, 충목왕 3년(1347)에 찬성사에서 정방제조로 임명되었다. 천마산은 경기도 개풍군에 있으며, 관음사(인근에 관음굴이 위치), 개성사, 운흥사, 대흥사 등의 고찰이 있는 곳이다. 조선 태조 4년(1395)에 고려 왕씨를 위해 수록재를 설행하던 3곳 중의 하나인 관음굴이 부근에 위치해 있다. 이는 덕녕공주가 천마산에서 베푼 수록회가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 없으나, 관음사나 관음굴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한다.

넷째, 액을 없애고자 설행하는 解厄水陸齋이다. 목은 이색(1328~1396)의 『목은고』에는 좌시중이 태후를 위해 액운을 풀고 안녕과 보호를 위해 해액수륙재를 베풀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은혜와 의리 다 풍부한 이 몇이나 될고
 남양의 택상이 못 신하 중에 으뜸이로세.
 액운 풀고 안녕 보호에 천기가 오묘하니
 水陸齋의 향연이 온 누리에 두루 퍼지리.

自注에, “좌시중⁴⁶⁾이 태후를 위해 解厄水陸齋를 베풀었다.” 하였다.⁴⁷⁾

46) 고려시대에 도첨의사사와 도첨의부에 둔 종일품 벼슬로 공민왕 12년(1363)에 첨의좌시중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문하시중으로 바뀌었다.

47) 이색, 『목은고』 권20, 詩, 有感 “恩義兼豐有幾人 南陽宅相冠群臣 保安解厄玄

해액수륙재란 재난이나 재앙을 없애기 위해 베풀어지는 수륙재라는 의미다. 여기서 말하는 태후는 본관이 南陽으로 충숙왕의 비인 明德太后(1298~1380)로 볼 수 있다. 명덕태후의 성은 홍씨로 충혜왕과 공민왕을 낳았으며 아버지는 부원군 奎(?~1316, 충숙왕 3)이다. 『고려사』에 보면 충숙왕과 가장 먼저 혼인을 하였지만, 원의 복국장공주나 조국장공주 등이 들어오면서 홍씨의 종실인 정안공 집으로 나가서 지내야 하는 신세였다. 또한 아들인 공민왕 10년(1361)에 홍건적이 침입하여 남녘으로 함께 피난을 가기도 하였다. 하지만 공민왕이 신돈을 신임하여 가까이 하면서 신돈일파의 이간질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었다.⁴⁸⁾ 여기서 말하는 좌시중은 명덕태후의 남매인 홍용의 둘째아들 洪彦博(1309~1363)을 말한다. 이로 볼 때 태후가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간에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었다. 홍언박의 생애 중 좌시중으로서 수륙재를 베풀 수 있었던 시기는 홍건적 침입으로 왕과 태후가 남녘으로 피난갔던 시점이 가장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태후의 조카이자 좌시중이었던 홍언박이 베푼 해액수륙재란 태후 개인을 위한 안위이자 곧 국가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추선을 위한 수륙재로서, 고려시대 기록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유형이다.

먼저, 元天錫(1330~?)의 『운곡행록』에는 효성스런 조카가 죽은 어머니를 위해 수륙재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다.⁴⁹⁾

機妙 水陸香煙遍刹塵 自注 左侍中設太后解厄水陸齋”

48) 『고려사』 권89, 열전2 후비2.

49) 『운곡행록』은 운곡이 20세(충정왕 3년, 1351)부터 65세(조선 태조 3년, 1394)까지 44년간 쓴 것으로 737제 1,144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 중 불교관계 시가 186수가 실려 있다. 도현철, 「원천석의 안회적 군사관과 유불도 삼교일리론」, 『운곡원천석연구논총』(강원: 원주문화원, 2001), 197면.

2월 초2일 비 내리는 가운데 여러 가지를 읊다
 효성스런 조카 수록재를 베푸니
 좋은 때에 어머니 위해 저승에서의 복을 빛나게 하네.
 훌륭한 법회에 참석하여 함께 경의를 돌리려 했지만
 진흙과 물길에 나약한 말 타는 것이 견디기 어렵네.⁵⁰⁾

다음으로는 난산으로 죽은 공민왕의 비인 승의공주를 위해 나옹화상이 주관한 국행수룩재를 들 수 있다. 이 기록은 나옹 화상(1320~1376)의 『나옹화상어록』 상당법어에 실려 있다. 공민왕의 비인 노국대공주 [寶塔實里公主]인 승의공주(1329~1364)⁵¹⁾가 난산으로 죽자(공민왕 13년, 1364) 그를 위해 국가에서 주관한 수록재인 國行水陸齋를 열었으며, 당시 왕사였던 나옹 화상이 직접 주관하였다.⁵²⁾ 『나옹화상어록』에는 이와 관련하여 상당법어로 세 가지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육도중생에게 설하는 것이며(國行水陸齋起始六道普說), 둘째는 회향이며(廻向), 셋째는 빈당에서 영가에게 소참법문을 하는 것(殯堂對靈小參)이다.

나옹 화상이 주관한 국행수룩재는 승의공주가 사망한 것이 공민왕 13년(1364) 2월경이므로 바로 그 해에 수록재가 베풀어졌을 것이다.⁵³⁾

50) 원천석, 『운곡행록』 권5, 詩, 二月初二日雨中雜詠;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헌으로 본 고려시대 민속』(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403면, “二月初二日雨中雜詠 孝姪開張水陸儀 令辰爲母賁冥禧 欲參勝會同歸敬 泥水難堪弱馬騎”

51) 원나라의 황족인 魏王의 딸로서, 1349년(충정왕 1) 원나라에서 공민왕과 결혼하여 承懿公주로 책봉되었다.

52) 고려말 나옹혜근(1320~1376)은 『나옹화상어록』에서 많은 부분을 대령소참, 수록재 등 의례(영가법어)에 할애하고 있다. 김효탄, 『고려말 나옹의 선사상 연구』(서울: 민족사, 1999), 164 - 169면.

53) 『나옹화상어록』(『한국불교전서』 6권, 서울: 동국대출판부, 2002), 717 - 719면.

이 수록재에서는 나옹 화상이 육도중생을 위해, 그리고 회향시와 대령 소참시에도 빈당 등 세 차례 걸쳐 법어를 하고 있다.

이어서 승의공주 사후 10여 년이 지난 갑인년(공민왕 23년, 1374) 납월 16일에는 경효대왕(공민왕)⁵⁴⁾ 영가를 위한 수록법회가 개설되었는데, 이 법회에서 나옹 화상은 소참법문(甲寅臘月十六日敬孝大王水陸法會)과 육도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법문을 하였다(六道普說).⁵⁵⁾ 이처럼 공민왕과 그 비를 비롯한 영가들을 위한 수록재가 10여 년의 시차를 두고 행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섯째, 공신제로서의 무차대회를 들 수 있다. 공신제로서의 무차대회는 수록재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성격으로 보아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⁵⁶⁾ 고려 태조 23년(940)에 설행한 내용에 “신흥사를 중수하고 공신당을 설치하여 삼한공신을 동쪽과 서쪽 벽에 그리고 1주야 동안 무차대회를 열었는데, 이것이 매년 상례로 되었다.”⁵⁷⁾고 기록하고 있다. 즉, 12월 공신을 위한 시제는 新興寺에 공신당을 설치하여 삼한공신의 화상을 그리고 無遮大會를 1주야인 24시간 동안 여는

54) 경효대왕은 공민왕의 시호로 정식명칭은 ‘恭愍仁文義武勇智明烈敬孝大王’이다.

55) 나옹, 앞의 책, 723-724면.

56) 이능화는 이보다 훨씬 앞선 신라 진흥왕대에 설해진 수록전사자를 위한 추천명복의 팔관회를 베푼 것을 후대의 수록재라고 하여, 그 시원을 신라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 眞興王 33年 조에 “겨울 10월 20일 전쟁에서 죽은 사졸을 위해 외사에서 팔관연회를 7일 동안 베풀었다.(冬十月二十日 爲戰死士卒 設八關筵會於外寺七日罷)”에 대해 이능화는 수록재로 보고 있다. “新羅八關會 初爲戰死士卒而設也. …(中略)… 所以爲水陸戰死士卒 追薦冥福 以祈超脫災厄難關 陞遷安樂刹土也 後世之設水陸齋會者. 卽古八關會之遺意也.” 이능화, 『朝鮮佛教通史』(新文館, 大正7年, 서울: 민속원영인, 2002), 하권 291면.

57)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3, “是歲 重修新興寺 置功臣堂 畫三韓功臣於東西壁 設無遮大會一晝夜 歲以爲常”

것을 매년 10월 상례로 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이후 무차대회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기사는 220여 년이 지난 의종 19년(1165) “庚申에 玄化寺에 出御하였다가 辛酉에 還宮하여 無遮大會를 設行하였다.”는 기록만 보이고 있다.⁵⁸⁾ 하지만 원종 3년(1262)에 이와 관련된 기사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겨울 10월 기미일. 彌勒寺와 功臣堂을 다시 세웠다. 처음에 태조 이래의 공신들의 초상을 모두 벽에 그려 놓고 매년 10월에는 절에서 재를 올려 그들의 명복을 빌었다. 그런데 지난 시기에 遷都로 인하여 이 행사가 오랫동안 폐지되었던 것인데 이때에 와서 왕의 명령으로 공신당을 다시 세우고 재를 올리게 하였다. 임진년 遷都功臣인 崔怡, 무오년 衛社功臣들인 추밀원사 김인준, 상장군 박희실, 이인환, 김승준, 박송비, 추밀원사 유경, 장군 김대재, 김용재, 김석재, 차송우, 상장군 임연, 장군 이공주, 대장군 김홍취 등의 초상화를 모두 공신당의 벽에 그렸다.⁵⁹⁾

이 기사를 통해 태조대 공신당에서 지낸 무차대회가 매년 10월에 명복을 빌고자 베풀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몽골의 침입으로 장기간의 항전을 위해 고종 19년(1232)에 도읍을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한 이후에 다시 실행되는 원종 3년(1262)까지 30여 년간 폐지되었던 사실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강화도 천도 이후 30여 년간을 제외하고는 매년 무차대회가 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최승로 기사에서 알 수 있듯

58) 『고려사』 권18, 세가18 의종2, “庚申出御玄化寺 辛酉還宮設無遮大會”

59) 『고려사』 권25, 세가25 원종3 10월, “冬十月己未重營彌勒寺及功臣堂. 初自太祖以來功臣皆圖形壁上 每歲十月爲張佛寺以資冥福 頃因遷都久廢 至是王命重營設齋以壬辰年遷都功臣崔怡 戊午年衛社功臣樞密院使金仁俊 上將軍朴希實 李仁桓 金承俊 朴松庇 樞密院使柳璈將軍金大材 金用材 金碩材 車松祐 上將軍林衍 將軍李公柱 大將軍金洪就等並圖形壁上”

이, 수록재는 무차수록회로도 불렸다. 따라서 무차대회 또한 수록재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⁶⁰⁾ 이렇게 본다면 고려시대에 수록재가 가장 먼저 설행된 것은 신흥사에서 삼한공신을 위해 개설된 무차대회로 볼 수도 있다. 즉, 무차대회는 삼국이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발발한 전쟁에서 새 왕조인 고려건국을 위해 신명을 바친 공신을 위한 의식이자 불교적 의식을 통해 백성들을 위무하고 분열되어 있던 민심을 정신적·정치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기재로서 설행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는 멸죄를 위한 목적으로, 앞에서 살펴본 광종의 무차수록회를 들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려시대에 설행된 수록재는 민간에서 왕실에 이르기까지 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록상으로 나타난 고려시대에 설행된 수록재를 정리해 보면, 추선을 목적으로 한 수록재가 5번(명복기원 포함)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외에도 낙성식이나 병을 치유하고자 하는 치병, 액을 없애고자 하는 해액, 자신의 죄업을 참회하는 멸죄는 물론이고 불교의 근본 가르침인 불덕을 이루고자 개설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설행된 수록재는 어느 사찰이나 장소를 막론하고 일시적으로만 이루어졌을까? 아니면 불교적 사상에 맞게 건립되었던 사찰의 도량처럼, 수록재를 설행하기 위한 전각이나 도량

60) 물론 무차대회는 인도에서, 수록재는 중국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수록재가 후대에 발생한 것이기에 초기의 형태가 무차대회와 어떤 상관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중국에서 이 두 가지가 설행되면서 명칭이 결합되어 하나로 통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수록무차평등재의촬요』라는 의식집에서도 그 예를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논문을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은 없었을까? 일시적이거나 몇 차례에 치러진 의식(의례)이었다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루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수륙재는 국행으로도 설해졌음을 볼 때 그에 맞는 도량이 마련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수륙재와 관련한 전각이나 도량이 존재하였는지, 존재하였다면 어떤 형태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4. 수륙재 도량의 건립

수륙재 실행과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기사들과 더불어 수륙재와 관련한 당우나 도량의 건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수륙재 도량이나 당우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기사가 등장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첫째는 광종 22년(971) 갈양사에 수륙도량을 개설한 것과 둘째는 선종 6년(1089)부터 건립하기 시작한 보제사 수륙당이 그것이다.

먼저 갈양사에서 “수륙도량을 개설”⁶¹⁾하였다는 내용이다. 앞에서 밝혔듯이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는 낙성식을 수륙재로 베풀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둘째는 혜거 국사의 하산소로서 갈양사를 수륙재 실행을 위한 사찰로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에서 이에 대해서는 전자를 당연시해 왔다. 하지만 이것은 후자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갈양사는 이미 혜거 국사가 하산소로 정하기 전부터 사찰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곳이 국가 만대의 복된 터[福地]이므로

61) 앞의 각주 38) 참고

복을 비는 곳으로 획정하였다. 그래서 이곳에다 새롭게 불상과 탑과 전각과 누각을 지었다. 이것이 어떤 형태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고려시대에는 각 종파는 소속사원을 갖게 되며 그들 사원의 구성형식이 종파별로 차이를 가지게 된다. 김봉열·박종진에 따르면, 화엄종 사찰은 單塔式 가람을, 유가종의 미륵신앙계는 交軸型 가람을, 정토계 사찰은 竝列軸型을, 조계종은 無塔 가람제를 선호했다고 한다. 이러한 종파적 구성형식은 각 종파 고유의 신앙형태와 사상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자료의 빈곤으로 구체적인 실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복합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⁶²⁾

혜거 국사의 하산소로서 갈양사는 국가적인 지원으로 중창하는 만큼, 종파적 사상에 입각하여 건립되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 있다. 갈양사의 종파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선종의 모든 승려들이 승과를 치르는 선종계통의 사찰인 광명사의 주지를 지냈던 보육에게 감독하도록 한 점과 국사가 이곳 하산소에서 “知見을 없애 참선하니 曹溪宗風이 크게 떨치었다.”고 한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명확하게 선종을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종계통의 조계종 사찰가람 형식으로 지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 고려말 선승이었던 나옹 화상도 수륙제에서 상당범어 등 선종식 의례를 포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륙도량이 선종과의 친연성 혹은 관련성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기에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선종계통의 조계종 사찰이 앞에서 말했듯이 무탑 가람제를 선호했다고 하지만, 이곳에는 “불상과 탑과 전각과 누각을 건립”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 그 정형이 무엇인지를 쉽게 단정지을 수는 없다.

62) 김봉열·박종진, 「고려 가람의 구성형식에 관한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5권 제6호(서울: 대한건축학회, 1989), 29면.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륙재가 혼구 등 천태종 계통의 승려들에 의해 설행된 것과 관련하여 천태종과의 연관성을 언급하고 있다.⁶³⁾ 하지만 의천에 의해 개창된 천태종은 혜거 국사의 갈양사 중창보다 훨씬 늦은 시기이므로 선종에 바탕을 둔 화엄업이나 유가업과의 복합적인 구조 등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여하튼간에 갈양사에서 수륙도량이 고려시대 불교의 제종파 중 선종계열의 성격을 띠고 중창되었지만, 수륙재 설행을 염두에 두고 조성되었는지는 추후 다른 사료적 전거 등을 통해 검토되어야 한다. 갈양사에 수륙도량을 개설한 것은 최사겸이 보제사에서 수륙당을 건립하려 한 당우 차원을 벗어나서 하나의 도량으로 건립되고 있음으로 파악할 때 그 의미는 매우 높다. 왜냐하면 이는 조선초 진관사 수륙사의 건립보다 앞선 예이자 이전부터 수륙재가 고려에서 활발하게 설행되었음을 반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추를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요소는 수륙도량을 개설한 이듬해에 혜거 국사가 하산할 때 왕이 조, 면필, 뇌원다, 기혈, 전결 등을 하사하였으며, ‘興福佑世’의 휘호를 내리기도 하여 이곳을 애초에 수륙도량으로 건립하고 지속적인 복을 빌도록 하였을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의 수륙도량 건립 시기와 이것이 고려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면밀한 연구가 요청된다.

둘째, 최사겸이 송에서 수륙의문을 구해와 수륙당을 짓기를 청하여 보제사에서 공사를 하였으나 마치기도 전에 불이 났다.⁶⁴⁾ 이 기사가 선종 7년(1090) 1월 임진일(17일)의 기사인 것으로 보아 이미 그 전해

63) 홍기용, 앞의 논문, 47 - 48면; 심효섭, 앞의 논문, 222 - 223면.

64) 앞의 각주 14) 참고.

인 1089년부터 수륙당을 건립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보제사는 개성에 있던 사찰로 광통보제사, 충숙왕 때 연복사로도 불렸다. 고려조에 오백나한재, 기우제 등 다양한 의례가 행해졌던 사찰이다.⁶⁵⁾ 앞의 기록보다 34년 뒤인 1123년에 고려를 방문하여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서긍의 『고려도경』, 「사우」조에는 보제사의 가람배치에 대해 “왕부의 남쪽 태안문 안에서 곧장 북쪽으로 100여보 지점에 있다. 절의 편액은 官道에 중문의 남향으로 걸려 있고, 방은 ‘神通之門’이다. 正殿은 극히 웅장하여 왕의 거처를 능가하는데, 그 방은 ‘羅漢寶殿’이다. 가운데에는 금선, 문수, 보현의 세상을 모셔놓고 옆으로 나한오백구가 벌려 있다. … 양쪽 월랑에도 그 상이 그려져 있다. 정전 서쪽에는 5층탑이 있는데 높이가 2백 척이 넘는다. 뒤는 법당이고 곁은 승방인데 1백 명을 수용할 만하다. 맞은편에는 거대한 종이 있다. …”⁶⁶⁾라고 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보제사는 東殿西塔식으로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전형적인 고려 종파별 사찰의 전형과는 거리가 있다.

중국 송대에는 고려보다 앞서 수륙당을 건립한 예가 있다. 曾鞏(1019~1083)의 「金山寺水陸堂記」에 의하면, 1048년 금산사를 중건하면서 이듬해 금산사 승려 瑞新이 수륙당이 들어설 터를 정하고 낙성하였다고 한다. 금산사는 강소성 진상에 있는 절로 양무제가 수륙재를 처음 설행했다고 전해지는 사찰이다.⁶⁷⁾ 당시 고려는 송과의 교류

65) 권상로, 『한국사찰사전』(서울: 이화문화출판사, 1994).

66) 『선화봉사고려도경』 권17, 사우조, “廣通普濟寺 在王府之南 泰安門內 直北百餘步 寺額揭於官道南向中門 榜曰神通之門 正殿極雄壯 過於王居 榜曰羅漢寶殿 中置金仙 文殊 普賢三像 旁列羅漢五百軀 … 又圖其像於兩廡焉 殿之西爲浮屠五級 高逾二百尺 後爲法堂 旁爲僧居 可容百人 相對有巨鐘 …”

67) 강호선은 이 수륙당이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도 될 듯하다고 하고 있

에서 육로가 아닌 해로를 통해 강남으로 사신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들을 들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보제사의 수륙당 건립은 우리나라에서 수륙재와 관련한 건조물에 대한 첫 번째 기사임을 감안해 볼 때, 이보다 앞서 건립된 송대 금산사 등의 예를 따라 최사겸이 입송하여 이 사실을 전해 듣고 건립을 청했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에서는 양무제 이후 수륙재가 시작된 이래 송대에 유행하여 많은 수륙화가 그려졌으며, 수륙(대)전이 건립되어 오늘날에도 현전하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다.⁶⁸⁾

보제사에서 건립하려던 수륙당이 어떤 모습이었으며, 또한 수륙당만의 건립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또한 화재로 건립이 중단되었는지 이후에 계속 건립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후 기사도 없어 다양한 가능성을 추론할 뿐이다.

이 이후에는 고려조에서 수륙재와 관련하여 당우를 건립했다는 기록이 아직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당우는 없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수륙재와 관련한 당우의 건립이 수륙도량의 개설로 이어졌다는 기록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된 실마리는 조선시대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수륙도량으로서의 구체적인 모습이 언급된 것은 조선 태조대에 조성된 진관사가 현재까지 밝혀진 기록으로는 처음 등장한다. 권근의 『양촌집』에 실린 「진관사수륙사조성기」가 그것이다. 여기에 따르면, 태조 6년(1397)

다. 「宋·元代 水陸齋의 성립과 변천」, 『역사학보』 제206집(서울: 역사학회, 2010), 158 - 159면; 道昱, 「水陸法會淵源考」, 『普門學報』 第37期(臺灣: 普門學報社, 2007).

68) 홍기용, 「中國 元·明代 水陸法會圖에 관한 考察」, 『미술사학연구』 제219호(서울: 한국미술사학회, 1998), 48 - 55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에 걸쳐 진관사에 59칸이나 되는 水陸社를 건립하였다.

… 佛說에 따르면 사람은 죽어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가 지은 선악에 따라 윤회하여 태어나는데, 부처가 능히 자비로 고통을 없애고 기쁨을 주며 허덕이는 고난에서 구제하여 줄 수 있으므로, 산 사람이 만일 부처를 섬기고 승려를 대접하는 일을 하여 복리로 인도하면, 죽은 귀신이 주립에서 배부르게 되고 괴로움에서 즐겁게 되어 成佛하여 영구히 윤회의 응보를 면하게 되고, 산 사람도 잘 되게 된다고 한다. 이리므로 효자와 자손과 우매한 지아비나 지어미에 이르기까지 모두 휩쓸려 다투어 부처에게 돌아가되, 혹시라도 미치지 못할까 걱정하여 온 세상이 몰밀듯이 높이고 숭상하는데, 水陸無遮平等會가 더욱 그 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이다.

홍무 정축년(1397, 태조 6년) 정월 을묘일에 주상께서 내신 李得芬과 사문신 祖禪 등에게 명하기를,

“… 옛 절에다가 水陸道場을 세우고 해마다 齋會를 개설하여 祖宗들의 명복을 빌고 또한 중생들에게도 복되게 하고 싶으니, 너희들이 가서 합당한 곳을 살펴 보라.”

하였다. 사흘 지난 정축일에 이득분 등이 書雲觀 신 尙忠 陽建 및 사문 志祥 등과 함께 삼각산에서 도봉산까지 둘러보고 복명하기를 ‘모든 절이 진관사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하니, 이에 상이 도량을 이 절에 설치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대선사 德惠와 지상 등에게 명하여 승려들을 불러 모아 일을 시작하도록 하였는데, 내신 김사행이 더욱 힘써 그달 경진일에 역사를 시작하였다. 2월 신묘일에 상께서 친히 임하여 보시고 3단의 위치를 정하였으며, 3월 무오일에 또한 거등하여 보셨는데, 가을 9월에 공사가 끝났다. 3단이 모두 3칸 집인데, 중·하 두단은 좌우에 또한 육실이 각각 3칸씩 있고 하단은 좌우에 따로 조종들의 영실을 각각 여덟 칸씩 설치했으며, 대문·행랑·부엌·곳간 등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 모두 59칸이라, 사치스럽지도 않고 누추하지도 않아 제도에 맞았다.⁶⁹⁾

69) 권근, 『양촌집』 권12, 記類, 津寬寺水陸社造成記 “… 佛氏之說 以爲人死不滅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조선 태조는 옛 절에다가 수록도량을 세우고자 하여 적합한 곳을 물색토록 하여 수록도량을 건립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그래서 천문·災祥·曆日·推擇 등을 맡아보던 서운관과 지상 스님 등이 한양 인근을 둘러보고 수록무차평등회를 베풀 수록도량으로 가장 적합한 곳으로 진관사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진관사에 조성된 수록사는 상중하 3단으로 나누어져 조성되었으며 모두 59칸이나 되는 대규모 도량이 건축되었다. 진관사 수록사의 특징은 권근이 언급한 것처럼, 첫째는 중하단 두 단의 좌우에 옥실 3칸씩 설치하였고, 둘째는 하단의 좌우에 조종의 영실을 각각 여덟 칸씩 설치하였다는 점이다. 수록도량을 건립하는 조성기에서 전각의 명칭은 언급하지 않고 조종 영실, 옥실, 부엌 등만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전각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에 생략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수록도량의 전체적인 구성을 파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료임에도 이를 적시하지 않아 그 근거가 제공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수록재와 관련한 당우나 전각, 수록사라는 수록도량의 개설이 이루어졌다는 데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진관사의 수록사를 영국

隨其所作善惡 輪轉受生 而佛能以慈悲拔苦與喜 濟其淪溺 生者若爲事佛飯僧 以導其利 則死者之神 飢可得飽 苦可得樂 以至成佛 永免輪轉之報 而生者亦蒙饒益 於是孝子慈孫 以至愚夫愚婦 莫不靡然爭歸於佛 猶恐不逮 舉世滔滔 是崇是尚 水陸無遮平等之會 尤其法之最勝者也 洪武丁丑正月乙卯 上命內臣 李得芬沙門臣祖禪等若曰 … 欲於古刹 爲建水陸道場 歲設以追祖宗冥福 且利群生 爾往相之 越三日丁丑 得芬等 與書雲觀臣尙忠陽建沙門志祥等 相自三角山 至道峯山 復命曰 諸刹不若津寬寺之勝 於是上令置道場於是寺 爰命大禪師 德惠志祥等 召集僧徒 以事營作 內臣金師幸尤致力焉 以其月庚辰 始興其役 二月辛卯 上親臨觀 定其三壇位次 三月戊午 又幸觀之 至秋九月 功乃告訖 三壇爲屋皆三間 中下二壇左右 又各有浴室三間 下壇左右 別置祖宗靈室各八間 門廊廚庫 莫不備設 凡五十有九間 不侈不陋 以中厥度 …”

사로 이전하는 등의 기록(『조선왕조실록』 세종31년 4월21일 경오조 등)으로 보아, 이 외에도 수록사가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수록재와 관련한 전각이 언급된 사료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로는 조선후기 건립 4년(영조 15, 1739)에 씌어진 <무위사사적>에서 찾을 수 있다. 사적에 따르면, 신라 현강왕 원년(875)에 도선 국사(827~898)가 2창을 할 때 대웅보전, 보광전, 미타전, 나한전, 수록전, 대장전 등을 건립한 것으로 되어 있다.⁷⁰⁾ 이 사료가 신빙성이 있는 것이라면 이미 신라시대에도 수록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수록재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적이기 조선후기에 쓰였음에도 그 이전의 사료에서 찾아보기 힘든 신라시대 때의 수록전을 언급하고 있어 신빙성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수록재는 당시에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그로 인해 수록전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전남 해남에 위치한 대흥사에 전하는 순조 23년(1823)에 간행된 『大菴寺誌』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그 북원에 대웅보전은 「죽미기」⁷¹⁾에 이르기를 승려 희식이 중수하였고, 나한전은 승려 석해가 중수하였고 … (중략) … 수록전은 승려 응현이 중수하였다.”라고 하고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죽미기」를 인용하여 사찰의

70) 梵海覺岸 後書撰, 『無爲寺事蹟』, 「全羅左道康津月出山無爲寺事蹟」, 1739(乾隆四年己未年九月初五日) “無爲寺者在康津縣北四十里 … 寺有殿宇極其宏傑 隋煬帝大業十三年 新羅眞平王三十九年丁丑 元曉國師初創曰 觀音寺 其廣張額數日 大光明殿 彌陀殿 毘盧殿 東禪堂 西僧堂 東上室 西上室 東別室 西別室 瞻星閣 西門 鍾閣 天王門 解脫門 食堂 唐僖宗乾符二年 新羅憲康王元年 乙未 道詵國師二劫曰葛屋寺 大雄寶殿 寶光殿 彌陀殿 羅漢殿 水陸殿 大藏殿 東方丈 西方丈 東禪堂 西僧堂 正門 沙門 寺蹟碑一塔 …”

71) 中官海眼(1567~?)이 1636년에 찬술한 사적이.

북원에 대응보전을 비롯하여 승려 응현이 중수한 수록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⁷²⁾

이상의 기록들을 참고해 볼 때 우리나라에도 수록재와 관련된 당우나 전각들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존하는 실례가 없어 실체를 확인할 수는 없다. 더구나 이 전각들이 어떤 기능을 하였으며, 어떤 존상이나 불화, 벽화 등이 모셔지고 그려져 있었는지는 짐작할 만한 직접적인 사료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기록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이전에도 이러한 실례가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5. 맺는 말

고려시대의 수록재에 대한 연구는 사료의 부족으로 인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필자는 시론적인 성격으로 고려시대의 수록재에 대한 단편 記事를 통해 수록의례집의 간행과 유포, 수록재의 설행 형태와 목적, 수록재와 관련한 도량 건립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고를 정리하면서 고려시대의 수록재와 관련하여 고려불교사에서 수록재의 의의와 앞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고려시대에 수록재와 관련된 기사는 『고려사』를 비롯하여 개인문집이나 비문 등에 10여 차례 정도 등장한다. 그런 만큼 고려불교사에서

72) 수릉색성, 초의의순 편집, 『대둔사지』(전남: 대둔사지간행위원회·강진문헌연구회, 1997), 29면, “其在北院者曰 大雄寶殿竹迷記云僧希式重修 羅漢殿僧釋海重修 十王殿僧公敏重修 八相殿僧靈源重修 七星殿僧湛正重修 祖師殿竹迷記不載 圓通殿連于祖師殿 水陸殿僧應玄重修 … 皆在溪水之北也”

차지하는 위상을 논의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고려불교 의례들의 다수가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듯이, 수륙재도 이와 유사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수륙재는 왕실에서부터 사찰, 개인에 이르기까지 설행주체도 다양했으며, 참석 범위도 광종조의 기사에서 보여지듯이 일반 백성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 백성들에게 생필품을 나눠주는 복지적인 측면도 엿볼 수 있다. 또한 그것을 담당했던 승려들도 헤쳐 국사나 나옹 화상과 같은 선종계통과 혼구나 진정 국사와 같은 천태종 계통 등 종파를 불문하고 행해졌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무차대회와 하나로 통합되어 무차수륙회로 불리기도 하는 등 통합적 의례화되어 갔다는 점 등에서 그 위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통합적인 의례화는 이후 조선시대에 억불정책으로 각종 불교의례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적으로 공식적인 불교의례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륙의례집의 간행과 관련한 직접적인 기사는 『고려사』의 선종 7년에 최사겸이 송나라에서 구해 온 수륙의문과 『동문선』에 이제현이 쓴 혼구의 碑銘에 스님이 편찬한 『신편수륙의문』 2권, 조선시대에 간행하여 현존하는 수륙의례집인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천지명양수륙잡문』 등 고려 죽암공이 편찬하거나 또는 고려시대에 쓰여진 발문 등 몇 편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의 기록을 통해 볼 때 고려시대에도 여러 의례집이 수차례 간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것은 조선시대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쌍봉사에서 간행된 영남대 소장본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의 이제현의 발문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수륙재의 설행 목적을 살펴보았다. 첫째는 고려의 건국 공신을 위

한 공신재이며, 둘째는 적멸의 근원인 佛德을 깨닫도록 하는 것으로서 진정국사의 『호산록』 「수륙재소」를 들 수 있다. 셋째는 追善의 재의로, 기록상으로 남아있는 수륙재 중 가장 많은 횃수를 차지하고 있다. 넷째는 治病을 위한 수륙재이며, 다섯째로는 액을 없애는 解厄水陸齋이다. 여섯째로 罪業을 消滅하고자 설행한 것이다. 일곱째로 수륙재를 통해 당시 유행하던 불교를 통해 백성들을 위무하고 정신적·정치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기재로도 활용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목적으로 수륙재가 설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륙재와 관련한 당우는 선종 6년(1089) 보제사에서 수륙당을 건립한 것을 시발로 하고 있다. 이는 송의 선진문물 도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후 조선 초기의 기록이긴 하나 권근의 『양촌집』에 실린 「진관사수륙사조성기」나 조선후기에 간행된 『無爲寺事蹟』, 『大菴寺誌』에 수륙사, 수륙전 등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여러 형태로 수륙재 관련 전각이나 도량이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본고에서는 고려시대에 간행된 것으로 파악되는 수륙재 의례집 판본별 연구를 통한 구체적인 설행 모습을 밝히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끝으로 불교 전통문화를 문화콘텐츠화하는 바탕은 그 원천요소(원형)를 가능한 한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야만 더욱 더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본고가 수륙재의 불교문화콘텐츠화에 기초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불설염구경천지명양수륙의문』
쌍봉사 간행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고려사』
『고려사절요』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2.
이 색, 『목은고』
원천석, 『운곡행록』
『동문선』 권118.
수룡색성, 초의의순 편집, 『대둔사지』, 대둔사지간행위원회, 강진문헌연구회, 1997, 1 - 675면.
나옹혜근, 『나옹화상어록』, 『한국불교전서』 6권, 서울: 동국대출판부, 1994.
『한국불교전서』 11권, 동국대출판부, 1992, 1 - 871면.
김순미, 『조선조 불교의례의 시가 연구 - 범음산보집을 중심으로』, 경성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5, 1 - 204면.
김형우, 『高麗時代 國家的 佛敎行事に 대한 研究』, 동국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2, 1 - 313면.
김효탄, 『고려말 나옹의 선사상연구』, 민족사, 1999, 1 - 287면.
남희숙, 『조선후기 불서간행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4, 1 - 201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편, 『수륙재현황조사보고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2010, 1 - 108면.
리영자, 『천책스님의 호산록』, 해조음, 2009, 1 - 498면.
임종욱 역주,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동해시, 2007, 1 - 304면.
허홍식, 『진정국사와 호산록』, 민족사, 1995, 1 - 472면.
-----, 『高麗佛敎史研究』, 일조각, 1990, 1 - 934면.

- 강호선, 「송원대 수륙재의 성립과 변천」, 『역사학보』 제206집, 역사학회, 2010, 139 - 177면.
- 고상현, 「종교 페스티벌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연구(1) - 수륙재를 중심으로」, 『영상문화콘텐츠연구』 2집, 동국대문화콘텐츠연구원, 2009, 95 - 128면.
- 김봉열·박종진, 「고려 가람의 구성형식에 관한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5권 제6호, 대한건축학회, 1989, 27 - 35면.
- 김순미,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板本考」, 『東洋漢文學研究』 제17집, 東洋漢文學會, 2003, 27 - 67면.
- 김승희, 「감로탱화에 보이는 수륙재의 도상화 양상」, 『삼화사와 국행수륙대재』, 삼화사국행수륙대재보존회·동해시, 2009, 115 - 155면.
- 김형우, 「수륙재 의식집의 간행과 유포」, 『삼화사와 국행수륙대재』, 삼화사국행수륙대재보존회·동해시, 2009, 61 - 90면.
- 김희준, 「朝鮮前期 水陸齋의 設行」, 『湖西史學』 제30집, 호서사학회, 2001. -----, 『조선전기 수륙재의 설행』,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27 - 75면.
- 남희숙, 「16-8세기 불교 ; 의식집의 간행과 불교대중화」, 『한국문화』 제34집,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4, 97 - 165면.
- 미등, 「삼화사 수륙재의 설단과 장엄」, 『삼화사와 국행수륙대재』, 삼화사국행수륙대재보존회·동해시, 2009, 193 - 216면.
- 박용진, 「고려중기 의천의 불교의례와 그 인식」, 『한국중세사연구』 제22호, 한국중세사학회, 2007, 147 - 176면.
- 송일기·한지희, 「불교의례서 「중례문」의 편찬고」, 『서지학연구』 제43집, 서지학회, 2009, 115 - 149면.
- 심효섭, 「朝鮮前期 水陸齋의 設行과 儀禮」, 『東國史學』 제40집, 동국사학

- 회, 2004, 219 - 246면.
- 연제영, 「영원사 甘露幀畵의 考察 : 所依經典과 儀禮文을 중심으로」, 『博物館誌』 제12호, 江原大學校中央博物館, 2006, 17 - 34면.
- , 「儀禮的 觀點에서 甘露幀畵와 水陸畵의 內容 比較」, 『불교학연구』 제16호, 불교학연구회, 2007, 265 - 297면.
- , 「수륙재 실행 형태 高찰」, 『제2회 법성포단오제 학술대회 법성포수륙대제』, 법성포단오보존회, 2008, 25 - 35면.
- , 「甘露幀畵의 意味 考察 : 追薦 對象을 中心으로」, 『역사민속학』 제19호, 한국역사민속학회·민속원, 2004, 337 - 372면.
- 윤무병, 「국행수륙재에 대하여」, 『백성옥박사송수기념 불교학문문집』, 동국대학교, 1959, 629 - 645면.
- 윤은희, 『감로왕도 도상의 형성 문제와 16, 17세기 감로왕도 연구 : 수륙재의 궤잡과 관련하여』, 동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4, 1 - 132면.
- 이용윤, 「朝鮮後期 三藏菩薩圖와 水陸齋儀式集」, 『美術資料』 제72·73호, 국립중앙박물관, 2005, 187 - 232면.
- 전경옥, 「수륙재의 기원과 역사적 전개양상」, 『제2회 법성포단오제 학술대회 법성포수륙대제』, 법성포단오보존회, 2008, 1 - 24면.
- 탁현규, 「18세기 삼장탱 도상과 양식 연구」, 『미술사학보』 제23호, 미술사학연구회, 2004, 155 - 189면.
- 홍기용, 「中國 元·明代 水陸法會圖에 관한 考察」, 『미술사학연구』 제219호, 한국미술사학회, 41 - 85면.
- 홍윤식, 「수륙재의 구성과 의미」, 『삼화사와 국행수륙대제』, 삼화사국행수륙대제보존회·동해시, 2009, 13 - 25면.

<Abstract>

A Study of Koryo Dynasty Suryukjae

Ko, Sang - Hyung

Due to the lack of historical datas, the Study of Koryeo Dynasty Suryukjae(Buddhist Ritual for the Beings of Water and Land, Shuiluzhai) can not be achieved fully. Hereupon, I aim to study about the publication and circulation of rituals of Suryukjae, the forms and purpose of doing Suryukjae and the building type of temple for Suryukjae through the paragraphics which were written in the days of Koryeo Dynasty.

First of all, there are three articles which are directly to the publication of Suryuk ritual ceremony. 1st is Suryuk ritual sentences, Choi Sa - Geum had brought this articles from the Song(宋) country at Sun - Jong 7 accroding to 『Koryeo - sa』(高麗史).

The second is 『A new edition Suryuk ritual sentences』(新編水陸儀文) volume 2 which is written by monk Hon-gu. Lee Je - Hyun wrote an inscription for monk Hon - Gu.

The third is 『Chunji myungyang suryuk jaeui chanyo』(天地溟陽水陸齋儀纂要) and 『Chunji myungyang suryuk jabmun』(天地溟陽水陸雜文) etc. Some articles were published in Joseun Dynasty and remains until now. And others were written by monk Jukam in Koryeo Dynasty and were remained only the part of epilogue.

Although direct articles are not remained today. But judging from the records in the days of Koryeo, we can find that various rituals were published several times.

It has continued until Joseon dynasty. We can find this fact from Lee Jae Hyun's epilogue of 『Chunji myungyang suryuk chaeui chanyo』 which is edited by Ssangbong temple. That book is in Yong Nam University's library.

Next, I try to find the purpose of doing Suryukjae. First, Suryukjae is for the meritorious retainer at the founding of Koryeo dynasty. Second, Suryukjae is for attaining enlightenment for Buddha, that is Nirvana. We can find this from 『Hosanrok』(湖山錄)and 「Suryukjaeso」 written by Jin-Jung national affairs(眞靜國師). Third, Suryukjae is for Cheondo(薦度, The Buddhist ritual or service to help). The largest number of records about Suryukjae is for Cheondo. Fourth, it is for the Healing. Fifth, it is for removing the bad luck by Haeaeksuryukjae(解厄水陸齋). Sixth, it is for expiation of the sin. Seventh, it has been used to pacify the people and unify them spiritually and politically through buddhism which was spread among the people at that time. Likewise Suryukjae has been done in a various purposes but among them Suryukjae for the Cheondo was recorded the largest number.

The first structure associated with Suryukjae was built Suryuk house(水陸堂) in Bojesa at Sunjong sixth 1089 year. Suryuk house where builds in Bojesa.

There are some records for Suryukjae in the early of the Joseon dynasty. They are 「Jinkwansa Suryuksa Josunggi」(The record which creates) on

『Collections of Yang - chon』(陽村集) which is written by Kwon Keun and 『Muwisaajeok』(無爲寺事蹟), 『Deadunsaji』(大菴寺誌) in the late years of the Joseon Dynasty. We can find the record of Suryuksa(水陸社) or Suryukjeon(水陸殿) from those books. As above, it is thought that there are various type of buliding temple for Suryukjae.

Key words: Suryukjae, the publication of Suryuk ritual ceremony, Suryuk house(水陸堂), Suryuk ritual sentences(水陸儀文)